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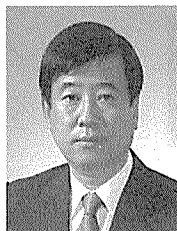
하늘나라에는 아직 프로그래머가 필요하지 않은가봐!

1988년 6월 30일자 한국일보는 '7월 1일부터 현금자동지급기의 공동이용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고객은 CD카드 한장만 있으면 전국 어느 은행지점에서도 현금인출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제 금융망의 제1단계 사업인 CD공동망이 전국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에 온 것이다. 나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부서장직을 맡은지 2년 남짓, 개발이 끝나 실행을 시작하던 날 세브란스 병원 CCU(관상동맥 중환자실)에서 삶과 죽음의 계곡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88년 4월 30일(土)은 2년동안 개발해온 CD공동 이용시스템의 실시 예정일로 정해놓은 날이다. 이행준비를 총점검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던 책임자들의 얼굴빛이 검푸른색으로 변해가고 모두가 자신이 없는 표정들이었다. "전투부대 지휘관이 자신이 없으면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겠소?" 큰소리가 터져나오고 서류몽치를 내동댕이쳤다.

어려운 순간에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나게 하는 순간이었다. 일단 결정을 내렸다. "내일 실시는 예정대로 하겠다. 절대로 사고는 나지 않는다." 회의를 끝내고 몇명의 책임자와 함께 퇴근길에 대포집을 찾았다. 그날따라 대포집 분위기는 창가에 뿌리치는 빗방울과 함께 회색빛 구름이 어두움을 재촉했다. "내일을 위하여 일찍 귀가 하시죠" 누군



趙利男

금융결제원 전산개발부장

가의 입에서 자리를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다.

예정된 일은 시작되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속보가 올라왔다. 한개 은행만 약간의 이상이 있고 모두가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이었다. 장기간 진행된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순간 나는 고통이 심해져 두손으로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의 허밀에 NG(니크로그리세린)란 응급약이 투여되었고 얼마후에야 경직된 얼굴 근육이 풀어지고 있었다. 통증은 멎었으나 혈압은 40-60이란다. KEG(심전도)커브는 평행선을 달리고 심장은 마비상태가 된 것이다. 중환자실로 옮겨져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갔고 열이 42, 오한이 엄습, 큰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쳐봐도 입속에서만 맴돌 뿐.

나는 끝없는 여행길에 올랐다.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나가는 내자신을 보고도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안돼 - 다시 올라가야 하는데 안돼 -

컴퓨터와 함께 한 20여년의 생활 나의 마지막 카렌다가 떨어지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가 순간에 연상되었다.

다시 살았다. 아직 나를 하늘나라에서 쓰기엔 시기상조인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덩으로 살게 된 것이다.